

인쇄하기

✕

☞ 인쇄

[HOME](#) > [지역](#) > [정읍](#)

정읍 배영중·고, 중국·일본 학교와 국제교류

☞ 임장훈 | ⌚ 승인 2018.08.05 19:44

| 글로벌 문화체험으로 우정 더욱 돈독히



▲ 정읍 배영중·고를 방문한 중국 격매납이중학교 조어평창 인솔단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 배영학원(이사장 김규령) 산하 배영중·고교 학생들과 중국 산둥성 연태시 소재 격매납이중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상호 국제교류를 실시하며 글로벌 문화를 체험했다.

먼저 중국 격매납이중학교 조어평창 인솔단장을 비롯한 교사5명과 학생 16명이 지난달 25일, 3박4일 일정으로 정읍을 방문해 배영중·고의 교류 학생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실시했다.

방문단은 정읍시청과 내장사, 무성서원, 동학혁명기념관 등을 방문하고, 전주 한옥마을, 익산 미륵사지를 관람하는 등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느꼈다.

이어 29일에는 배영고 이상섭 교사를 비롯한 배영중·고 교사 4명, 학생 16명이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4박5일간 중국격매납이중학교를 답방했다.

이들은 중국 학생들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산둥성 연태시와 청도시 일원을 둘러보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1999년부터 실시한 배영중·고와 격매납이중학교의 국제교류는 올해로 20년을 맞이했다.

또 일본 지바현 야찌오시 소재 쇼인중·고교 교류단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정읍을 방문해 배영중·고교학생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실시했다. 배영중·고교는 오는 12월에 쇼인중고교를 방문해 교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영고 이정진 교장은“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국제교류에 참여하면서 학생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글로벌 문화체험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장훈 기자

 인쇄